



本聯合會顧問이셨던 孫基禎 大先生을 追慕하며

— 中國 教科書에서 높이 讚揚한 孫基禎 선수 —

陳 泰 夏

韓國國語教育學會 會長 / 本聯合會 理事長

이 資料는 필자가 臺灣에 체류하던 때(1967~1975)에 中華民國 教育部에서 편찬 간행한 小學校 國語教科書에 실린 내용으로서 후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특별히 소개한다.

1936년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 대회에서 孫基禎 선수가 마라톤 종목에 출전하여優勝을 획득하였지만, 가슴에 日章旗를 단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시상식 장면의 감동어린 내용과 한국인들의 강인한 愛國心を 특별히 강조한 글이다.

우리 나라 자체 國語教科書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것을 中國에서 이처럼 전국민의 教科書에 실리어 교육하였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反省을 금치 못하게 한다. 아울러 臺灣은 이처럼 우리 韓國에 대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友好的이었던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愛國的運動員

韓國是我們的隣國，從前叫做朝鮮。西元1910

年被日本占據，但是韓國人民始終忘不了他們的國家。

當時韓國有一位長跑健將孫基禎，他的成績打破了世界紀錄。西元一九三六年，世界運動會德國首都柏林舉行。日本政府就派孫基禎到柏林，代表日本參加比賽。結果，孫基禎得到的分數最多，獲得一塊光榮的金牌。大會主席特別和他握手道賀，但是孫基禎卻哭起來了。

有人問他：「你得到了金牌，爲什麼哭呢？」

他說：「我是朝鮮人，因爲國家亡了，我不能代表祖國來爭取光榮，只能算是日本的選手。想起了這種恥辱，怎麼教我不傷心呢？」

大家聽了他的話，都十分同情他。

由於韓國人都有強烈的愛國心，在第二次世界大戰之後，他們終於取得了獨立的地位，成立了大韓民國。

現在韓國人民發憤圖強，要把韓國建設成一個富強的國家。全國人民都說國語，不肯再說一句日本語。他們的愛國精神，真教人敬佩。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선수

한국은 우리들의 이웃 나라로서 종전에는 조선이라고 일컬었다. 1910년 일본에 점거 당했으나, 한국민들은 시종 그들 나라를 잊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 한 분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있었는데, 그의 실력은 세계 기록을 깨뜨렸다. 1936년 올림픽 대회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정부는 손기정을 베를린으로 파견하여 일본을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시켰다. 결과 손기정은 최고 점수를 얻어 영광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대회장은 특별히 손선수와 악수를 하며 축하의 말을 하였으나 손기정은 오히려 울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금메달을 받고도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조선인이지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조국을 대표하여 영광을 차지 못하고, 일본의 선수가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치욕을 생각할 때, 어찌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까?”

다함께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심분 동감하였다. 이처럼 한국민들은 모두 강렬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은 마침내 독립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강력히 분발 도모하여 한국을 하나의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전국민이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며, 단 한마디로 일본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의 애국정신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양하게 한다. ■

맞춤법 ⑱

하노라고, 하느라고

外國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用言 곧 動詞나 形容詞의 語尾 變化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가다’ 하나의 어미 변화가 ‘가고, 가니, 가면, 가려고, 갔다, 가겠다...’ 등과 같이 70여종이나 되니까 그 문법적 기능을 외국인들이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노라고’는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의 뜻을 나타내는 ‘노라고’의 연결 어미가 붙어 쓰이는 말이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노라고 했는데, 결과는 보람이 없게 되어 미안합니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다.

‘하느라고’는 하는 일로 말미암아의 뜻을 나타내는 ‘느라고’의 연결어미가 붙어 쓰이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공부하느라고 밥을 꼬박 새웠다.”와 같이 ‘하노라고’와는 전연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하노라고’의 말 뒤에는 ‘~는데’, ‘~지만’, ‘~으나’ 등과 같이 부정적 어미가 이어져 쓰이지만, ‘하느라고’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陳〉